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카디안 업종일등 ESG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의 80% 수준을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대형 우량주 중심의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ESG를 고려하는 책임 투자: 기업의 재무적 성과 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인 환경문제(Environmental), 사회적 책임(Social), 기업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종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투자합니다.

- 리스크관리팀에서 금융공학기법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세스 확립,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제공 및 운용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용업무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86억 원

-모투자신탁 92억 원

펀드유형 주식형, 종류형, 모자형
-주식 편입비 : 60% 이상
(2015년 12월 11일 모자형 전환)

설정일

(운용펀드 : 2005년 01월 18일)

- 클래스 A : 2014년 08월 05일
- 클래스 A-E : 2014년 08월 08일
- 클래스 C : 2010년 07월 26일
- 클래스 C-E : 2013년 08월 19일
- 클래스 C-F : 2022년 12월 15일
- 클래스 C2 : 2010년 10월 25일
- 클래스 C3 : 2010년 10월 25일
- 클래스 C4 : 2010년 10월 25일
- 클래스 C5 : 2010년 10월 25일

벤치마크 KOSPI 100%

신탁업자 국민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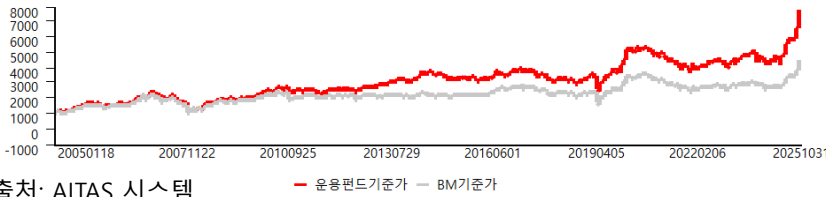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23.60%	32.34%	68.55%	74.42%	101.45%	97.76%	117.22%	681.22%
클래스 A	23.46%	31.85%	67.29%	71.67%	94.94%	88.18%	99.74%	105.09%
클래스 A-E	23.50%	31.97%	67.61%	72.38%	96.62%	90.65%	104.18%	116.43%
클래스 C	23.41%	31.66%	66.82%	70.68%	92.66%	84.88%	93.89%	176.87%
클래스 C-E	23.45%	31.81%	67.20%	71.49%	94.53%	87.60%	98.75%	143.48%
클래스 C-F	23.53%	32.10%	67.93%	73.07%	98.23%	-	-	91.24%
클래스 C2	23.42%	31.71%	66.93%	70.91%	93.20%	85.65%	95.38%	159.83%
클래스 C3	23.44%	31.75%	67.03%	71.14%	93.74%	86.38%	-	37.77%
클래스 C4	23.45%	31.81%	67.22%	71.43%	94.53%	90.90%	-	95.44%
클래스 C5	23.46%	31.82%	67.21%	71.51%	94.55%	87.62%	98.78%	173.89%
벤치마크	19.94%	26.56%	60.66%	60.69%	80.31%	79.08%	81.17%	344.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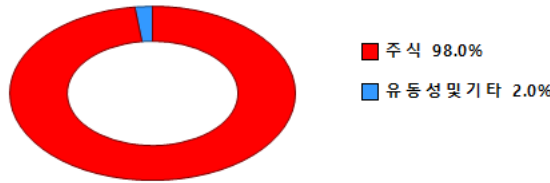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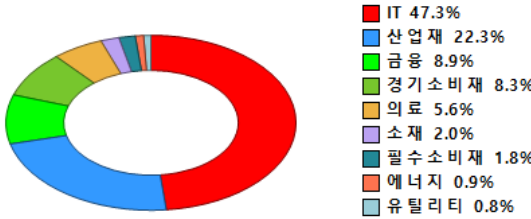
출처: 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10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전체>



<주식 업종별>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5년 10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19.3	이수페타시스	전기.전자	2.3
SK하이닉스	전기.전자	13.1	두산에너빌리티	기계.장비	2.1
LG에너지솔루션	전기.전자	3.2	현대모비스	운송장비.부품	2.1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	2.8	NAVER	IT 서비스	2.0
현대차	운송장비.부품	2.5	KB금융	금융	1.8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1.705% (판매 0.9%)
- 클래스 A-E : 총 연 1.255% (판매 0.45%)
- 클래스 C : 총 연 2.305% (판매 1.5%)
- 클래스 C-E : 총 연 1.805% (판매 1%)
- 클래스 C-F : 총 연 0.835% (판매 0.03%)
- 클래스 C2 : 총 연 2.175% (판매 1.37%)
- 클래스 C3 : 총 연 2.055% (판매 1.25%)
- 클래스 C4 : 총 연 1.935% (판매 1.13%)
- 클래스 C5 : 총 연 1.805% (판매 1%)

(공통사항)

운용 0.75%, 신탁 0.04%, 사무관리0.015%

선취수수료

클래스 A : 납입금액의 1.0% 이내
클래스A-E : 납입금액의 0.5% 이내
클래스 C, C-E, C-F, C2, C3, C4, C5 :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10월 KOSPI는 전월 대비 19.94% 상승한 4,107.50pt, KOSDAQ은 6.94% 오른 900.42pt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발표되며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부각된 가운데, AI 관련 투자 심리가 지속되고, 한국에서 개최되는 APEC에서의 각국 정상회담 내용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며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더했습니다. 레거시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재차 부각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업종이 시장을 견인했고, 2차전지 관련 업종 및 자동차 업종 또한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되며 유통, 섬유·의복, 음식료 업종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월 대비 1.50% 상승한 1,423.2원을 기록했으며, WTI 기준 국제유가는 전월 대비 2.23% 하락한 60.9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동기간 외국인 투자자는 5조 9,350억 원, 기관투자자는 1조 2,100억 원을 순매수했으며, 개인투자자는 6조 7,616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기계, 증권 업종의 종목선택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화학, 철강, 정유 업종의 종목 선택 효과가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종목단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데이터센터 매출 비중 (70% 이상) 확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와 고다층 MLB 수율 안정화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며, 엘앤에프는 북미 전기차 신차 효과와 LFP ESS 양극재 선점 기대가 반영되었고, SK하이닉스는 2026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50% 이상 성장이 예상되어 펀드 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반면, 와이즈엔터테인먼트는 주요 IP 투어 일정이 진행되며 모멘텀 현실화 이후 주가 부담이 확대되었고, 현대모비스는 관세 부담에 따른 실적 둔화 우려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며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 매매로는 9월에 이어 주주 및 실적 모멘텀이 둔화된 조선, 인터넷, 화장품 업종의 일부 차익 실현을 진행하였으며, 반도체 소부장 종목터어라운드가 기대되는 2차전지 밸류체인 기업들의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11월 국내 주식시장은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KOSPI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pt를 상회한 가운데, APEC 이후 발표된 글로벌 AI 파트너십 강화 및 산업 협력 기대감이 모멘텀에 힘을 더할 전망입니다.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양호한 3분기 실적 내용 또한 반도체 중심의 증시 상승 흐름을 지속할 요인이며, 이러한 상승세가 2차전지를 포함한 전력 인프라, 소프트웨어 등 관련 섹터로 확산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미국의 현지 투자 요구 및 관세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장기화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과 이에 따른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지연 등은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와 AI 버블 가능성은 시장 상승 속도를 제한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과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 속에서 10월 한 달간 약 20% 상승한 KOSPI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와 12월 금리 인하 신중론이 부각되며,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국내 투자자 예약금이 86.7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개인 자금의 대기성 유입이 이어지고 있으며, 선진국 간 경기 격차 축소에 따른 달러 약세 기조를 감안할 때 외국인 수급 또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AI CAPEX 확대에 따른 일부 중소형 기업들의 부채 증가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미국 3대 클라우드 업체들의 견조한 잉여현금흐름과 본업의 성장성을 고려할 때 이를 AI 투자 위축 요인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성장세가 국내 반도체 및 IT 산업 전반에 낙수효과를 유발하고 있으며, AI 컴퓨팅 구조가 훈련(Training)에서 추론(Inference)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국 수출 성장과 상장기업 이익 개선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반도체 밸류체인에 대해서는 조정 시 비중 확대 기조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방산, 전력기기, 원전, 조선 업종에서는 최근 두 달간 일부 차익실현을 진행했으나, 2026년 실적 상향 여력 및 주주 모멘텀이 강화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적 비중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럽 전기차 수요 회복, 리튬 가격 반등, ESS 매출 증가로 2차전지 업종의 터어라운드가 내년에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건설, 태양광, 자동차 부품 등 터어라운드 기대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도 관심을 확대하며 대응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 업종 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의 주도 업종 변화를 면밀히 추적하며 실적 기반의 우량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및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장 변동성 국면에서도 안정적 성과와 중장기 초과 수익 달성에 집중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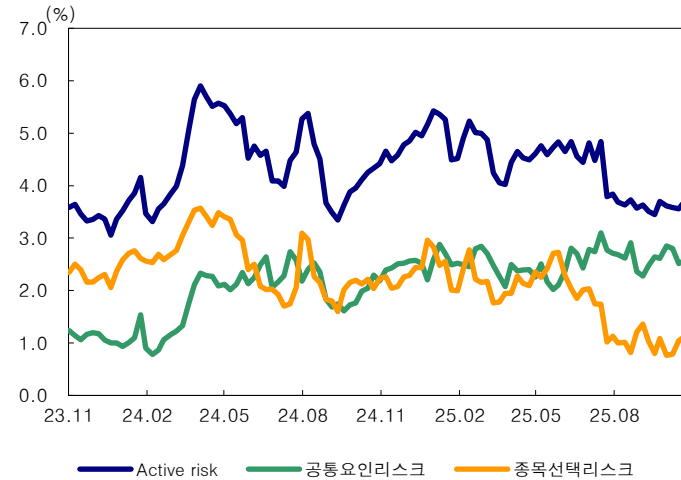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리스크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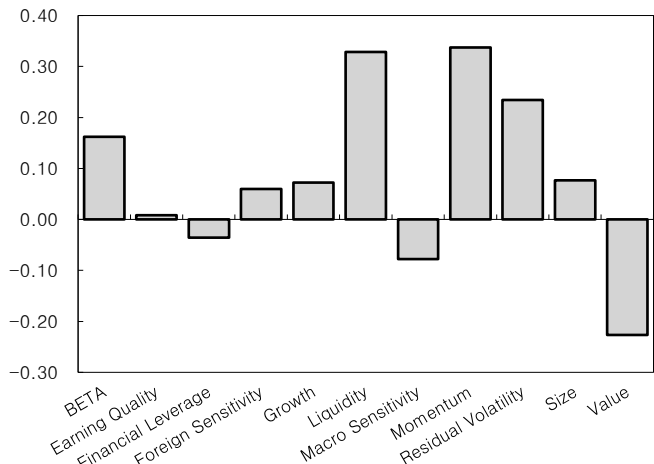
	2025-10-31	2025-09-30
Active Risk ¹	3.70%	3.41%
공통요인 리스크 기여도 ²	2.58%	2.55%
- 스타일 리스크 기여도	2.75%	2.30%
- 섹터 리스크 기여도	-0.17%	0.25%
종목선택 리스크 기여도 ³	1.12%	0.86%
베타	1.15	1.05

1. Active Risk는 벤치마크 대비 펀드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으로 공통요인 리스크와 종목선택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Active Risk 수치가 높을수록 펀드가 벤치마크에 비해 적극적으로 운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통요인 리스크는 스타일 및 업종 리스크와 공통요인간의 상관관계로서,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리스크를 의미 합니다.
3. 종목선택 리스크는 경영성과, 노사분규 등과 같은 개별기업의 특수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리스크로서 공통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기업 고유의 리스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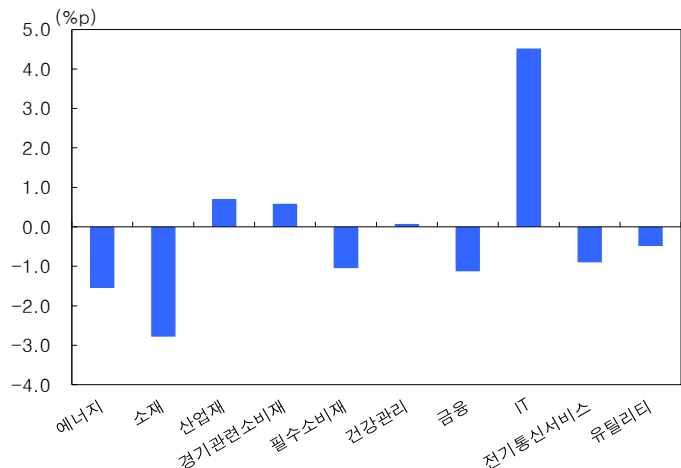
<Active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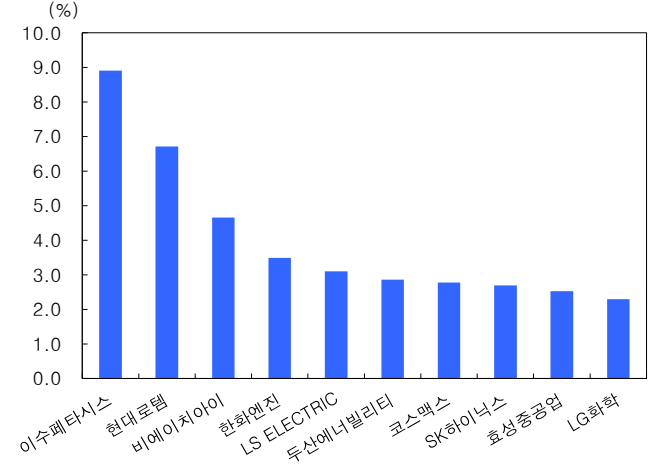
<벤치마크 대비 스타일 비중차>



<벤치마크 대비 섹터별 비중차>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



분석 결과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는 9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10월말 현재, 업종일등ESG증권포[주식] 펀드의 Active Risk는 3.7%로 전월대비 증가하였습니다.
- ▶ 종목수는 전월대비 2개 종목 증가하여, 83개 종목을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성향은 변동이 없었으나, 벤치마크 대비 'IT', '전기통신서비스' 등의 비중 차이는 증가하였고, '소재', '필수소비재' 등의 비중 차이는 감소하였습니다.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9월말 기준으로는 '이수페타시스'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상승하였고 '효성중공업'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하락하였습니다.
- ▶ 종목 선택으로 인한 리스크는 전월대비 증가하였고, 종목집중 위험은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 ▶ 동펀드는 'Value'보다는 'Momentum'이 높은 스타일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판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